

# 전남 사이클 명성 '가속 페달'

### 한·일 친선 학생사이클대회 전남미용고 나운서 '3관왕' 전남체육고 김채연 금은동 4

나운서(전남미용고·2년)와 김채연(전남체육고·3년)이 차세대 여자 사이클 스타로 성장하고 있다. 20일 전남자전거연맹(회장 정동)에 따르면 최근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 그린돔경기장에서 열린 '2022 한·일 친선 학생사이클대회'에서 나운서가 3관왕을 차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나운서는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따냈고 김채연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이번 대회 스프린트 경기에서 나운서는 11초 836, 김채연은 11초916으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어 경륜경기에서는 나운서가 12초168로 금메달을, 김채연은 동메달을 따냈다. 팀 스프린트 경기에서 나운서·김채연조는 47초 94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500m 독주 경기에서는 나운서가 37초 435로 은메달, 김채연이 37초473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나운서는 빛가람중 재학시절 2020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김채연은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선수다. 지난 6월 주니어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 500m



2022 한·일 친선 학생사이클대회 스프린트 경기 시상식. 김채연(왼쪽부터)·나운서·카타오카 마리아. <전남도체육회 제공>

지난 8월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서 열린 2022 UCI 주니어트랙사이클 세계선수권대회 500m 독주에서 금메달, 개인스프린트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10월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자전거 여자 19세 이하부에 전남대표로 출전해 금메달 5개를 따내는 기염을 토했다. <연경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 시설 안전관리 공인

### 전국 테니스장 첫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획득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이 전국 테니스장 가운데 처음으로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KSPO 45001)을 받았다. 20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진월국제테니스장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인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시설로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진월국제테니스장은 심사평가지표에서 안전경영 관리체계, 안전위생시설 및 활동수준, 관계자 안전의식 등 4개 항목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심사에서 전국 60개 신청 기관 중 진월국제테니스장을 포함한 24개 기관의 시설이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시 체육회는 "진월국제테니스장이 전국 테니스장 최초로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을 획득함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일 개최한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45001' 수여식. 전정민(왼쪽부터) 광주시체육회 진월팀장, 조한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평형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강대성 안전보건 담당. <광주시체육회 제공>

따라 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공인받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평형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경 기자 penfoot@kwangju.co.kr>

# V리그 올스타전 내년 1월 29일 인천서 개최

2022-2023 V리그 올스타전 개최지가 여자부 흥국생명(사진)의 홈 경기장인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으로 결정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19일 제19기 2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KOVO는 "올스타전 개최 후보지에 대해 도시별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팬 접근성이 좋고 약 6000석의 관중석을 보유해 많은 팬이 관람할 수 있는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을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8월에 발일 KOVO컵대회는 구미시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KOVO는 "내년 KOVO컵대회 우선협상 지역으로 구미시를 선정했다"며 "구미시는 62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구미 박정희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다. 연맹은 선정 관련 업무를 빠르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구미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의 연고지였다.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면, 2016-2017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2017년 3월 이후 약 6년 5개월 만에 구미에서 프로배구 대회가 열린다. <연합뉴스>

# 아르헨 월드컵 우승... 발리예바 도핑 파문

### AFP 선정 '2022 스포츠 10대 뉴스'

2022년 세계 스포츠 10대 뉴스에 테니스 스타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호주오픈 출전 관련 논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우승 등이 선정됐다. AFP통신은 20일 올해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시간 순서로 나열한 AFP통신의 올해 스포츠 10대 뉴스는 1월 조코비치의 호주오픈 출전 관련 논란으로 시작했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호주 멜버른 공항에 도착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됐다. 호주 연방 정부와 법적 소송을 벌인 끝에 조코비치는 대회 개막을 앞두고 결국 세르비아로 돌아가야 했다. 올해 US오픈에도 같은 이유로 불참한 조코비치는 내년 1월 열리는 호주오픈에는 출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두 번째 뉴스는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나온 피겨 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의 도핑 파문이다. 여자 싱글에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힌 발리예바는 2021년 12월 제출한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그는 만 16세 이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으나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4위에 머물렀다. 후주의 크리켓 선수 세인 워튼이 3월 53세 나이에 심장 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그 뒤를 이었다. 네 번째 뉴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각종 국제 대회 출전 금지 조치다. 러시아는 FIFA 월드컵 예선에서 추출됐고, 월드컵 테니스 대회에도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 선수들의 출전이 금지됐다. 다음 뉴스로는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호주오픈 테니스에 입국이 불허된 조코비치.



베이징 올림픽 도핑 파문 중심에 선 발리예바.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가짜 입장권을 가진 팬들이 입장하는 등의 소란 끝에 프랑스 경찰이 출동해 최후핵을 분사하고, 경기 시작이 36분 지연된 해프닝이 선정됐다.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미국 국가대표 아니타 알바레스가 의식을 잃고 수영장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안드레아 푸엔테스 코치가 구해낸 장면이 올해 세계 10대 스포츠 뉴스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의 후원을 받는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가 출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갈등을 빚은 일도 10대 뉴스에서

빠지지 않았다. 9월 '테니스의 전설' 로저 페더러(스위스)와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은퇴한 것도 큰 아쉬움을 남긴 소식이 됐다. 노르웨이 체스 선수인 망누스 카를센이 미국의 한스 니만에 대해 '부정 체스의혹'을 제기한 뉴스도 국내 팬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올해 세계 스포츠 10대 뉴스로 꼽혔다. 19일 끝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우승하고, 메시가 최우수 선수에 선정된 소식이 올해 스포츠 10대 뉴스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연합뉴스>

# 윌리엄스 2023 호주오픈 테니스 초청 선수 출전

비너스 윌리엄스(42·미국)가 2023년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에 초청 선수 자격으로 출전한다.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조직위원회는 20일 '윌리엄스에게 2023년 대회 여자 단식 본선 와일드카드를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윌리엄스는 호주오픈 대회 조직위를 통해 "내년 1월 다시 멜버른에서 경기할 생각에 매우 기쁘다"며 "20년 넘게 선수로 뛰면서 후주는 항상 저에게 많은 힘을 준 곳"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1980년생인 윌리엄스는 2023년에는 43세가 된다. 호주오픈 단식 본선에는 1998년 처음 출전했으며 2023년에는 25년 차가 된다. <연합뉴스>

호주오픈 단식 최고 성적은 2003년과 2017년 준우승이다. 여자복식에서는 2001년, 2003년, 2009년, 2010년 등 네 차례 우승했고, 혼합복식에서도 1998년 호주오픈 챔피언이 됐다.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7차례 우승한 윌리엄스는 현재 단식 세계 랭킹 1007위여서 자격으로는 메이저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는 출전하지 못했고, 이후 네 차례 대회에 나왔으나 모두 1회전 탈락했다. 윌리엄스보다 한 살 어린 동생 세리나 윌리엄스(미국)는 올해 US오픈을 끝으로 은퇴했다. 2023년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는 1월 16일부터 29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아바타: 물의 길, 올빼미
2관	아바타: 물의 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3관	아바타: 물의 길, 핑크퐁 시네마 콘서트 2: 원더스타 콘서트 대작전
4관	아바타: 물의 길,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5관	아바타: 물의 길, 올빼미
6관	영웅
9관	올빼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신비아파트 극장판 차원도깨비와 7개의 세계
7관 세세커피	아바타: 물의 길
8관 세세커피	영웅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2022 광주국악상설공연(12월)**  
 일시 : 2022-12-01(목) ~ 2022-12-22(목) 17:0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발레단 제133회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  
 일시 : 2022-12-21(수) ~ 2022-12-25(일)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문의 : 062-522-8716